

News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1년 더...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뉴스1

금융당국과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이 포함된 코로나 19 금융지원의 9월말 종료 앞두고 연장하기로 가닥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 차주들은 대출 상환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가능... 자연스러운 연착륙 유도하겠다는 의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4% 시대 오나

아시아경제

우리은행 예금 상품 'WON플러스 예금' 최고 금리 3.82%... 기존 3.52% 금리에 오는 23일까지 0.3%p 금리 쿠폰 적용... 4대 은행 예금 상품들, 이미 3%대 증반 넘어서...
금리 경쟁력이 무기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은 진작에 추월...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추가로 수신 금리 올릴 가능성 존재

인행서 주담대 받아볼까...시중은행보다 최저금리 1.8%p 낮아

뉴스1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 금리대는 연 3.28~5.139%로 나타나... 5대 은행의 금리대는 연 4.09~6.40% 기록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낮은 이유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왔기 때문... 주요 은행으로부터의 대환대출을 전략적으로 노려 금리 혜택 부여하겠다는 움직임

핀테크 업계 "투자자가 사라졌다"...토스마저 '금전' 쏟아

한국경제

작년 기준 신생 핀테크 유니콘 기업 수 총 163개에 달해... 어머 업스타트 코인베이스 등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2020년 이후 30곳 초과
다만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등으로 투자 시장 얼어붙으며 직격탄... 비바리퍼블리카, 차입금 규모 작년 말 3,333억원에서 올 2분기 6,136억원으로 크게 증가

"RBC비율 150% 넘겨라"...유상증자 쏟아내는 보험사

이데일리

보험사들, RBC비율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 시장 금리 인상 등에 따라 RBC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
한화손해보험, 1,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하기로 결정... 현재 2분기 기준 RBC비율 135.9% 기록... 최근 채권 시장내 자본성 증권 인기 떨어지며 확실한 수단 선택

한화생명 '금리 4%' 저축보험 파장...대형사들도 '금리 인상' 모색

뉴스핌

미국 연준의 21일 FOMC에서 울트라스텝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보험 경쟁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기존 출시한 저축보험 확정형 공시이율 높이거나 새로운 상품 출시 방안
삼성생명, 16일 기준 저축보험 확정금리를 3.55%로 조정...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이 4%대 출시하며 업계 전반적으로 동향 주시 중... 다만 일각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

미성년자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가능? 9개월째 결론 못 내는 금융위

경향신문

금융위원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허용 여부 계속 검토 중... 토스증권이 작년말 만 14~18세 청소년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출시했으나 금융위 제동
증권업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 준다고 볼 수 없지만 소비자 편의 증대와 잠재 고객 확보 차원에서 보완장치 마련해서라도 허용해달라는 입장

조각투자 영역 확대...증권사 시장 진입 본격화

데일리안

금융당국, 올 4분기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내놓을 예정...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 안내할 방침
장기적으로 ATS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 키움증권, 이랜드그룹과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협력 예정... 선박금융분야 소액 조각투자도 가능해질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